

사랑에 관한 네가지 신선한 이야기

중세의 낭만적 사랑법에서 순교적인 사랑까지

아무리 들어도 신선한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주제의 이야기이다.

영화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다. 최근 국내에 개봉된 영화들 중에도 사랑을 이야기구조의 중심에 둔 영화가 많다. 그 중 눈에 띄는 영화의 대부분은 역시 ‘책의 성취’를 영상언어로 전환시킨 것들이다.

서사적인 사랑

〈시라노〉로 유명해진 장 폴 라프노 감독의 〈지붕위의 기병〉(Le Hussard sur Le toit)은 프랑스의 대표작가 장 지오노가 1951년에 쓴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2차대전을 겪던 와중에 ‘대독 협력자’로 낙인 찍혀 심리적인 압박과 자책에 시달리던 장 지오노는 어느날 ‘흑마 위에 황금빛 이삭처럼 빛나는’ 기사 앙젤로를 떠올리는 10부작의 〈기병연작〉에 매달린다. 그러나 지오노는 4편의 장편을 완성하는데 그쳤고 소설 《지붕 위의 기병》은 《앙젤로》에 이은 두번째 장편이다.

영화 〈지붕위의 기병〉에 그려진 사랑은 다분히 서사적이다. 거대한 스케일 속에 환상처럼 번지는 사랑과 이별, 기사도적인 영혼과 낭만이 빛을 발하는 이 영화는 화면을 통해 문예미학을 추구해온 장 폴 라프노의 개성대로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원작소설을 영화화하겠다고 나선 르네 클레망, 코스타 가브리스 등 거장들을 제치고 라프노가 메가폰을 잡은 것도 그의 문예주의적인 개성과 무관하지 않은 듯 싶다.

지오노의 고향이자 원작의 무대인 프로방스 지방에서 촬영된 이 작품은, 콜레라가 만연되어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테러를 피해 지붕 위로 올라간 청년 기병과 미모의 후작부인이 벌이는 중세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펼친다. 물론 지오노를 일거에 프랑스 최고 작가로 끌어올린 소설의 위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원작에 충실한 영화 역시 ‘헝기증 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의 낭만적인 사랑법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영화가 제레미 레벤 감독의 〈돈 주

앙〉(Don Juan De Marco)이다. 이 영화는 원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 원작 시나리오는 운문형식으로 씌어진 바이런의 책 《돈 주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돈 주앙에 관한 전설이 영국 시인들의 작품과 불후의 작곡가인 모짜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통해 재창조되고

영화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사랑’이다. 사랑의 양상이 즐거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화일수록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경우가 많다. 정직한 감정묘사와 갈등구조의 형상화가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의 생명인 만큼 감독들은 이미 창조된 소설의 사랑을 선호한다.

20세기 후반에는 대중문화의 총아,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말론 브란도, 조니 뎀, 페이 더너웨이 등 유명배우들이 열연한 이 영화에는 중세를 사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공과 정신과 의사의 교감이 중요한 이야기 장치로 사용된다. 자기를 돈 주앙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환상의 대변자이고, 정신과 의사는 실제적 삶의 대변자이다.

제레미 레벤 감독은 자칫하면 극단적인 감성주의 영화로 흐를 소지가 있는 작품을 ‘꿈의 영역’에서 재창조한다. 실제의 리얼리티가 아닌 꿈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것이다.

결국 일상적인 삶이 주는 압박과 허영으로 인해 내재하는 감각을 거의 잃어버린 정신과의사 말론 브란도는 돈주앙의 현신인 주인공 조니 뎀에 의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영화의 진가는 이성(理性)과 몸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성으로 감각을 이겨내는 삶을 일반적인 삶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 정신문화의 병폐를 꼬집

고 있다는 데 있다.

쓸쓸하고 절박한 사랑

96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르며 국내에서도 영화 매니아들의 찬사를 받은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Leaving Las Vegas)는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벼랑에 몰린 두 남자가 펼치는 쓸쓸하고 절박한 사랑법이 그려진 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존 오브라이언의 반 자전적인 동명소설이다. 원작자인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작품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한 2주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자주인공 벤은 재활원에서 포기한 알콜중독자이고 여자주인공 세라는 창녀이다. 시나리오를 읽고 검토하는 일을 하는 벤은 도시생활의 강박과 허무를 견디다 못해 알콜중독자가 되고, 3백달러어치의 술을 한달간 마실 수 있는 돈과 가방만을 들고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난다. 도박과 가학의 도시에서 벤은 세라를 만난다. ‘갈데까지 간’ 이 두사람은 그들의 성분과 반대로 영화 속에서 ‘순수’와 ‘천사’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적이며 불안정하지만 서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

은 순수하다 못해 ‘순교적’이기까지 하다. 이 영화가 매니아들의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심리적인 원인은 그들이 순수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탈은 세상으로부터 늘 구석에 물리는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탈의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꿈꾸는 것이 ‘위선’이라면 라스베가스를 꿈꾸는 건 ‘위악’이다.

수채화 같은 사랑

로버트 제임스 윌러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화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는 중년의 수채화같은 사랑이 존재한다. 따지고보면 불륜인 이들의 사랑은 순백의 감성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흰 나방이 날개짓할 때 저녁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라는 W.B. 예이츠의 시가 등장하는 부분을 비롯 어떤 면에서 보면 사춘기 소년소녀들보다 더 감성적이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이다.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존재했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대사로 대변되는 사랑법이 그렇고, 결국 일탈을 거부하는 줄거



〈지붕 위의 기병〉 중 한 장면.

〈돈 주앙〉 중 한 장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중 한 장면.

상해의 조선인 스타, 김염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를 읽고

이효인 · 영화평론가 · 경성대 강사

리가 그렇고, 유골이 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재구성되는 결말이 그렇다.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다리’이다. 생성과 소멸의 중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상과 일탈의 갈림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60년대 미국사회의 가족가치가 보수와 진보의 기로에 섰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빛바랜 붉은 지붕이 덮인 다리’의 의미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함수관계의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는 소설처럼 ‘다리’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영화 전체의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영화에 사랑이 등장한다. 사랑의 양상이 줄거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화일수록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경우가 많다. 정치한 감정 묘사와 갈등구조의 형상화가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의 생명인 만큼 감독들은 이미 창조적 성취를 이루어낸 소설의 사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허연 기자

“나는 자기비판을 당했지만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상해시 흥만의 영화자료 창고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지난 시대의 영화 필름을 관리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넘을 잃은 채 관찰했지요.”

김염의 두번째 아내인 중국의 스타 진이(秦怡)는 문화혁명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쇼트 한 쇼트를 관찰한다면 그곳에는 언제나 울림이 있다. 조악하면 조악한 대로, 영롱하면 영롱한대로, 그래서 영화는 독수리처럼 장대하고 초월적이지만 저자거리의 진흙만 큼이나 성가시고 번잡스런 것이기도 하다. 진이는 현재 상해 영시공사의 사장으로 있다. 김염은 1983년에 세상을 달리하였다. 아들 김철은 문혁기에 앓은 병으로 정신장애자가 되었다.

진이는 그 참혹했던 문혁 시절에 필름을 닦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역사와 삶, 과거의 영화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현재의 고통을 영화처럼 생각하며 그냥 견뎌낸 것인지도 모른다.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는 그것에 대해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다. 일본인 특유의 사실과 자료에 대한 집착이 돋보이는 반면 저자는 자신의 견해나 유추 해석을 삼간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하필이면 왜 영화인가.

김염의 선택에 나는 의아심을

감출 수 없다. 그는 중국 좌파 감독의

견해에 동조했고, 점령 일본군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조선인 교육을

위해 돈을 쾌척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도 조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으며

역사는 우리를 기억한다고 김염은

말한다.



이효인씨.

된 김염에 대해 추적한 자료를 만난 사람과 탐방 시기별로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김염은 본명이 김덕린으로서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유능한 의사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 곳에서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 이후, 그는 친지의 도움을 받아 전전하다가 1927년에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그의 대표작은 중국의 대표적인 감독 손유감독의 항일영화 <대로>(1935)인데 여기서는 물론이고 많은 작품에서 비운의 스타 완영옥과 공연하였다. (완영옥의 일대기는 홍콩의 관금봉 감독에 의해 장만옥 주연의 <완영옥>으로 만들어졌다.)

하필이면 왜 영화인가? 김염의 선택에 대해 나는 의아심을 감출 수 없다. 물론 그는 중국 좌파 감독들의 견해에 동조하였고,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자 이에 결코 협력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교육을 위해 흔쾌히 돈을 내놓았다. 의문은 또 있다. 해방이 되었는데 그는 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기반과 부실한 조선어 실력 그리고 아내 때문에?

농구를 즐겼던 건장한 체격과 호쾌하면서도 사교적이지 못했던 성격, 사회주의에 동조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그는 문혁기에 역시 하방

을 당한다. 중국과 대만이 통일되는 날 마시겠다고 담근 술은 아직도 그의 아내인 진이 집에 있다.

그에게 조국은 중국이었을까? 1930년대의 삼류배우 남빈이었던 강청이 모택동을 등에 업고 중국 영화의 선구자들인 전한, 정군리, 채초생, 전방 등을 죽일 때 김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대목에서 나는 ‘아리랑’의 김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쉽사리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역사가 운명지위준 필연이었다고.

“오늘날 중국에 자신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역시 진이가 저자에게 터뜨린 울분이다. 김염과 같은 기간을 보낸 또 한 명의 영화 황제 유경은 김염과 자신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영화를 암시하듯 “뜻이 높으면 소리는 자연히 멀리 울리는 법이며 강풍의 힘에 의지해 원하는 곳에 이를 수는 없다”고 저자에게 말했다.

1930년대와 1990년대, 영화 그리고 김염은 그 6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신념의 화살을 내지른다.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으며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한다. ❖

스즈키 쓰네키쓰 지음/이상 옮김

실천문학사/A5신/286면/6800원

